

# 광주·전남지역 기름 소비량 증가...주유소는 '줄폐업'

올 소비 광주 5.72%·전남 0.78% ↑ 1년새 지역 주유소 12곳 문 닫아 '고물가' 경쟁 과열로 영업 부진 업계 "규제 완화·정책 지원 시급"



기름값이 하락하면서 올해 광주·전남지역 기름 소비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유소는 여전히 줄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시

기름값이 하락하면서 올해 광주·전남지역 기름 소비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유소들의 폐업은 이어지고 있다. 주유소 이용객은 늘었지만 고물가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 부진을 겪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사이트 페트로넷의 제품별지역별소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광주지역 휘발유·경유 합계 소비량은 469만3000배럴로, 지난해 동기 대비(443만9000배럴) 25만4000배럴 (5.72%) 증가했다. 1배럴이 158.9 l임을 감안하면 약 4036만 l가 증가한 셈이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내 기름값 상승,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 등을 거치면서 △2019년 603만8000 배럴 △2020년 560만3000 배럴 △2021년 559만 배럴 △2022년 554만3000 배럴 △2023년 535만9000배럴로 꾸준히 감소했다. 전남지역 기름소비량은 소폭 증가했

다. 지난 1~10월 휘발유·경유 합계 소비량은 1291만9000배럴로, 지난해 동기 대비(1281만2000배럴) 10만7000배럴 (0.78%)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541만2000배럴 △2020년 1521만배럴 △2021년 1557만3000배럴 △2022년 1539만2000배럴 △2023년 1560만6000배럴 등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기름소비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늘어난 것은 기름 가격 하락으로 운전자들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

및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으로 기름소비량에 예년과 비교해 감소한 데다가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도별 주유소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광주지역 주유소는 총 241곳으로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6년새 39곳, 지난해 대비 4곳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69곳 △2021년 262곳 △2022년 257곳 △2023년 245곳 등으로 줄고 있다. 전남지역 지난달 기준 주유소는 총 854곳으로, 6년새 50곳 줄었으며, 지난해보다 8곳 감소했다.

이러한 주유소 폐업현상은 근래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에너지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간한 'E-Mobility 성장에 따른 석유산업 대응전략 연구'에 따르면, 2040년까지 2019년 말 대비 전체 주유소의 74%가 시장에서 사라져 2980여개소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소 1개소당 수익도 평균 30% 이상 감소가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석유제품 내수 시장에서 휘발유, 경유 등의 수요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30년 기준 전망 대비 약 40%까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친환경차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기존 석유에너지의 수요 감소하고 주유소가 쇠퇴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된 미래라는 것이다.

이에 주유소업계는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을 통한 주유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22일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며 '육내주유소 규제 완화', '경쟁축진 정책 중단', '지원금 신설'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기름판매 외의 유회사업 및 육내주유소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주유소 수익성 하락으

로 폐업이 속출하는 만큼 주유소 유회사업 확대 및 육내주유소 등 복합화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 유회사업 확대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육내주유소는 기존의 캐노피식 주유소를 철거하고 빌딩 내 1층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알뜰주유소는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해 유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로 인해 오히려 일반 주유소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업 주유소 지원책 마련도 논의됐다.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는 폐업 시 필수적인 토양오염 정화 비용과 철거 비용이 커 방지되기 쉽다. 주유소 폐업 비용 지원 법안이 과거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의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유소 폐쇄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정책 전환과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대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은행은 최근 창립 56주년을 맞아 동구 대인시장에 위치한 천원밥상 '해뜨는 식당'에 백미 100포대,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16곳에 백미 300포대 등 총 400포대를 후원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창립 56주년' 쌀 후원으로 지역사랑 실천

복지시설 등에 백미 400포대 후원

광주은행은 최근 창립 56주년을 맞아 동구 대인시장에 위치한 천원밥상 '해뜨는 식당'에 백미 100포대,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16곳에 백미 300포대 등 총 400포대를 후원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후원 전달식은 대표로 광주 대인시장에 위치한 '해뜨는 식당'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뜨는 식당'은 2010년 개업한 이후로 14년째 가격 인상 없이 단돈 1000원에 백미를 판매하고 있는 식당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하겠다는 사장님의 선한마음이 지역사회에 전달돼 현재는 나눔 정신이 살아 숨쉬는 광주공동체의 상징적인 장소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삼

는 광주은행은 이번 후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으며, 후원된 백미는 '해뜨는 식당' 외에도 광주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돼 겨울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병일 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ESG 리딩뱅크' 도약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 △지역사회 환원 △지역인재 양성 △문화·예술·스포츠 후원 △기업가치 제고 등 핵심가치 확립을 통해 지역민의 실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반자로서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지역 밀착 상생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 광주상의 'NCS 기업활용' 7년 연속 수상기업 배출

울 경진대회 '초이스톨링' 수상 컨설팅 지원 통해 직무 표준화

광주상공회의소는 27일 열리는 '2024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초이스톨링이 장려상을 수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고자 2015년부터 올해로 10년째 개최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108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서면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9개 기업(최우수 5개사, 우수 7개사, 장려 7개사)가 선정됐다. 최우수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우수 및 장려 기업에게는 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광주상의는 올해 컨설팅을 진행하며 긍정적 성과를 도출한 기업 4개사를 선정해 공모에 참여했으며, 그 중 1개 기업이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7년 연속 수상 기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장려상을 수상한 ㈜초이스톨링은 자동차 및 생활가전 부품 생산용 정밀금형을 제조하는 프레스 부품 전문 회사로 광주광산구 진곡산단에 위치해 있다.

우수 인력 확보, 교육 훈련을 통한 핵심 인력 육성,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 등의 문제로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사업에 참여해 NCS 기반의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를 표준화하고 공정채용 및 역량강화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채화석 상근부회장은 "최근 전국 기업 체감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지역 기업들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을 통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기아, 상품성 개선 '더 뉴 EV6 GT' 계약 개시

기아가 고성능 전기차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더 뉴 EV6 GT'의 계약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더 뉴 EV6 GT는 강력한 사륜구동 시스템에 걸맞은 고성능 특화 사양과 다채로운 최신 편의·인포테인먼트 사양을 적용해 주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고성능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량이다.

기아는 더 뉴 EV6 GT의 전·후륜 모터 성능을 합산 최고 출력 448kW(609마력), 최대 토크 740Nm(75.5kgf·m)로 향상시키고, 런치 컨트롤과 가상 변속 시스템(VGS, Virtual Gear Shift) 등 고성능 감성을 더해줄 특화 사양을 새롭게 적용했다.

특히 런치 컨트롤 작동 시 EV6 GT의 전·후륜 모터 성능은 합산 최고 출력 478kW(650마력), 최대 토크는 770Nm(78.5kgf·m)로 더욱 높아져 제로백(정

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3.5초를 구현한다.

기아는 더 뉴 EV6 GT의 시트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리고, 최신 편의·인포테인먼트 사양도 대거 추가해 상품성을 높였다.

기아는 더 뉴 EV6 GT 전용 스위트 스포츠 버킷시트에 기존의 1열 열선/통풍 기능 외 파워 시트(8방향) 기능을 추가했으며, 운전석에는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과 이지 역세스 기능을 적용해 다수의 운전자가 이용하는 환경에서도 최적의 주행 자세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뉴 EV6 GT의 판매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기준 7220만원이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고객들은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영 기자

